

OpenDoors

10

2023

VOL.258

전세계 박해 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월간 소식지

북한선교현장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함께 나누다

박해와 선교현장

콜롬비아(Colombia)

박해뉴스

파키스탄 / 리비아

현장스토리

스리랑카 : 16세 소년이 그리스도를 위해 나섰습니다

나이지리아 : 사가라 목사는 아내와 아들이 주님과 함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영상)

Heart To Heart

- 박해 받는 교회를 위한 국제기도의 날(IDOP)

- 한국오픈도어 연중 캠페인

Ch



한국오픈도어선교회 +



OpenDoors
세계를 향한 사랑의 문을 여는

COLUMN

브라더 앤드류(Brother Andrew) (1928 -2022)
오픈도어 설립자

가슴 속에 불타오른 사명 내 안에 무언가가 불타올랐다

브라더 앤드류(Brother Andrew)는 오픈도어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왜 하나의 질문으로부터 출발했는지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그 첫걸음은 브라더 앤드류가 2년간 공부한 스코틀랜드의 선교사 양성 학교 지하실에 놓여 있던 한 잡지를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화려한 4색 컬러로 인쇄된 잡지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개최될 전세계 사회주의 청년 축제(Worldwide socialist youth festival)를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9,600만명의 회원을 보유한 청년 단체에 대해 읽었습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교리문답과 예배나 행사 등을 위해 소그룹을 모으는 일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9,600만명이라는 숫자는 제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들은 2~3년에 한 번씩 전세계 어딘가에서 큰 축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임 장소들을 눈여겨 봤습니다. 장소의 이름들이 저에게 너무나 생소했고, 마치 저에게는 닫혀진 장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행사가 곧 열릴 예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행사에 대해 읽었습니다. 저는 크리스천인데 여러

분들의 행사에 참석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만약 제가 참석하게 된다면, 저는 크리스천답게 행동할 것입니다." 저는 결코 답장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예상과는 달리 그들은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환영합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참석하시고, 원하셔도 하셔도 됩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브라더 앤드류는 빈손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좋은 생각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성경말씀을 가지고 가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선물용 복음서들과 기독교서적, 그리고 공산권 국가의 언어로 번역된 신약성경을 주문해서 그곳으로 보낸 뒤, 그곳으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축제에 참석하여 공산주의 청년들의 마지막 퍼레이드 행진을 보면서, 브라더 앤드류는 자신에게지금 필요한 관점과 자세를 성경말씀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매우 군기가 잡혀 있고, 아주 자신감이 넘치며, 매우 공격적이고, 겉보기에는 강해 보이는 대형 퍼레이드 행진을 보았습니다. 그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다(이사야 45:23)’라고 말입니다. 그들은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불렀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무릎도 꿇으세요.”

그 당시, 브라더 앤드류는 오픈도어 사역의 영감을 준 요한계시록 3장 2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누군가를 부르실 때는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부르신 첫 날에 그 부르심의 목적과 계획을 드러내 주지 않으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언젠가 오픈도어가 어떻게 될지를 보여주셨다면, 저는 절대 그 첫걸음을 떼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천 걸음을 걷고 나면 어떻게 될지 하나님은 절대 보여주지 않으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충만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걸음을 내딛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준비시키실 것입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자들을 굳건하게 하라’ 그 때 저는 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야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시 저는 어떻게 그들에게 가야 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 일단 한 도시로 가보자’하고 결단했지만, 돈도 없고, 연락할 사람도 없고, 말조차 할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불타오르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그래서 주님께 대답했습니다. ‘주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브라더 앤드류가 동유럽 첫 방문에서 돌아왔을 때, 그는 하나님께 답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천천히 응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단체 이름을 오픈도어라고 부르기로 결정하고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많은 모임들을 통해 설명하듯이, 오픈도어라는 이름에 담긴 놀라운 의미는 “우리들의 사명인 복음전파라는 지상대

명령 앞에 문자 그대로 모든 문들이 열려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모든 문을 여셨기 때문에, 누구도 그 문들을 닫을 수 없고, 어떤 문도 닫힐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눈이 감겼거나 여러분의 마음이 닫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들은 열려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닫혀 있는 문을 아신다면, 저에게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어떻게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를 알려 주겠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저는 어떻게 문 밖으로 나갈 수 있는지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자들을 굳건하게 하라”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오픈도어(Open Doors)는 전 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지원하고 그들을 위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브라더 앤드류는 동구권으로의 첫 방문으로 시작하여 교회가 공격받고 있는 중국, 구 소련,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중동 등 전세계 많은 곳으로 복음 중심적 사역을 확산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픈도어는 60개가 넘는 나라들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브라더 앤드류에게 주신 “남겨진 자들을 굳건하게 하라”는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묘비에 남기고 싶은 말이 있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경건한 말처럼 들릴 것 같긴 하지만, ‘그는 여기에 없다. 그는 부활하였다.’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는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했다.’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오스왈드 챔버스의 묘비에 적혀있는 문구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브라더 앤드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입니다. 이보다 어떤 설명이 더 필요한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불리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이 있을까요?”

(편집자 주: 이 이야기는 오픈도어가 녹화한 브라더 앤드류의 영상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CONTENTS

05 북한선교현장

-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함께 나누다

06 박해와 선교현장

- 콜롬비아(Colombia)

14 박해뉴스

- 파키스탄 / 리비아

18 현장스토리

- 스리랑카 : 16세 소년이 그리스도를 위해 나섰습니다
- 나이지리아 : 사가랴 목사는 아내와 아들이 주님과 함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영상)

22 Heart to Heart

- 박해 받는 교회를 위한 국제기도의 날(IDOP)
- 한국오픈도어 연중 캠페인

한국오픈도어를 섬기는 사람들

2023년 10월호 | 통권 258호 |

등록번호-중랑, 라00042

공동대표 : 김성태 교수(국제관계), 신현필 목사(개발사역)

이사장 : 김성태 교수

부이사장 : 김영복 목사

이사회 : 서창원, 노창영, 김영우, 최홍규, 이동현,

배춘섭, 윤상덕, 이바울 이사

사무총장 : 김경복 선교사

개발/행정/재정/홍보/정보 : 문민환, 황자경, 박인영

민태홍, 김하영 간사

북한선교 : 이제나, 이다니엘, 윤수지, 안요한, 이정현,

김안나, 한아론, 장요셉 간사

발행처 : 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153 서울시 중랑구 봉우재로 133, 화성빌딩 2층

전화: (02) 596-3171 팩스: (02) 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홈페이지: www.opendoors.or.kr

카카오톡 채널: 한국오픈도어선교회 Open Doors

편집 및 디자인 : 김셋별

OPENDOORS 7가지 핵심가치



-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다
- 우리는 박해 받는 교회를 섬긴다
- 우리는 성경의 사람이다
-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다
- 우리는 믿음으로 살며 사역한다
-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지상명령에 헌신한다
-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역한다

SUPPORT

<후원신청>

한국오픈도어선교회의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후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기후원과 일시 후원**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후원을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의 '후원하기'를 이용해 주세요.** 또는 **소식지 가장 뒷면에 있는 CMS 정기후원 양식**을 작성해서 보내주세요.

* 홈페이지를 통해 후원하기를 신청하시면 '기부금영수증'은 자동발급 됩니다.



<계좌이체>

직접 계좌이체를 통해 후원하기를 원하시면 아래의 계좌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 서면으로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셔야만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전화문의 부탁드립니다.

<일시후원계좌>

라틴아메리카: KEB하나은행 630-007636-461

중앙아시아: 우리은행 1005-201-884969

중동(걸프 포함): 우리은행 1005-701-884976

아프리카: 우리은행 1005-901-884982

아시아: 우리은행 1005-901-884970

북한: KB국민은행 029301-04-169183

선교회후원: KB국민은행 029301-04-167093

희망의선물: 신한은행 100-027-453994

어린이&청소년 캠페인:

KEB 하나은행 280-890028-03905

여성사역 캠페인: 신한은행 100-027-219169

*예금주 공통: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오픈도어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 윤리강령 및 잡지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함께 나누다

2023년 월드와치리스트에 올라온 모든 국가의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으며 그중 높은 순위에 위치한 국가의 국민들에게는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매일의 도전입니다. 믿음을 살아내는 것 자체가 압박, 차별, 잔혹함, 그리고 충격적인 폭력의 행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2023년 월드와치리스트에서 1위를 기록한 북한은 여전히 기독교인들이 살아가기에 무참히 적대적인 곳입니다. 성도들은 정부당국에 발각되면 정치범들과 같이 끔찍한 환경의 강제 노동 수용소로 보내지거나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가족들 또한 운명을 같이 하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에게는 자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이거나 예배 드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기꺼이 만나는 사람들은 큰 위험을 감수하고 극비리에 해야 합니다. 새롭게 시행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거나 성경을 소지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이며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이와 같은 극심한 박해를 받는 이유는 기독교가 야만적인 정권의 독재적인 이데올로기와 통치에 대한 분명한 위협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기독교인들은 지도자들과 사회의 적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식량 사정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평양에 사는 한 여성은 이웃들을 살펴보기 위해 BBC에 다음과 같이 전했습니다 “저희는 그들에게 물을 주려고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이웃들은 집에서 굶어 죽었습니다. 북한 사역의 오픈도어 코디네이터인 시몬 형제는 기도로 북한의 기독교인들과 함께 해주시

기를 요청 드립니다. “지하교회 성도들은 이 어려운 시기를 견뎌낼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요청 드립니다. 부디 이들과 저희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이러한 믿기 어려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사용하시어 예수님을 따르기 가장 힘든 곳까지 닿을 수 있도록 하십니다. 시몬 형제가 전합니다 “북한의 성도들이 그들의 이웃들을 돕고 있다는 감격적인 이야기들이 저희에게 들려지고 있어요. 그들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부족한 가운데서도 가지고 있는 식량,약품, 그리고 그 외 다른 자원들을 나눠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은밀히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으며 기도해 주심에 대해 저희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이 굶주림과 가난의 시기 가운데서 그분의 자녀들을 먹이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 어려움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는 북한의 형제자매들을 위해 기도로 함께해주세요. 그리고 이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주세요.



기독교 박해지수 World Watch List 2023

기독교인의 종교적 자유 현황

기독교 박해지수

22위

콜롬비아 (Colombia)



폭력과 압박의 정도



* 6개 영역 박해 지수는 영역별로 16.7점을 만점으로 책정한다. 영역별 박해지수 총합은 100점이다 (16.7 × 6개 영역 = 100).

주목할 만한 점 (Key findings)

증가한 영토의 지배와 폭력의 결과로 교회 지도자들은 위협을 당하고, 갈취당하고, 심지어 살해당한다. 이는 게릴라와 특히 나라의 가장 방치된 지역에 있는 범죄 집단들에 의해 저질러진다. 대부분의 경우에 이러한 폭력은 부패와 폭력을 비난하는, 인권 및 환경권을 방어하고자 하는, 젊은이들과 일하는, 평화회복을 위해 돕는, 설교에서 범죄 활동들에 반대하는, 그들의 불법 활동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는 현지 범죄 집단들의 실질적인 권위를 반항하는 모든 행동들과 같은 활동에 가담하는 기독교인들의 직접적인 결과이다. 토착민 공동체에서 기독교 선교사들과 개종자들에 대한 큰 반대가 있고 이들은 결과적으로 구금, 신체적 학대, 그리고 기본권에 대한 거부를 직면한다. 이 공동체들 가운데 있는 기독교인들 중 전통적인/조상의 종교적 의식과 풍습을 따르지 않는 이들은 구금, 현지 교회 폐쇄, 신체적 학대, 위협, 괴롭힘, 그리고 기본권 거부를 직면하기도 한다.

급진적인 세속주의의 증가의 결과로 공공 영역에서 기독교적 관점, 특히 인생, 결혼, 그리고 신앙의 자유에 대한 편협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들의 신앙에 대해 공개 석상에서 얘기하는 기독교인들은 차별적이고 편파적 발언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때때로 표적이 된다. 이 같은 이유로 이들 중 일부는 표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자가 검열하는 것을 선택한다.

콜롬비아 (Colombia)

국가 정보

지도자 : 구스타보 페트로 대통령

인구 : 51,513,000 명

기독교인 수 : 49,002,000 명

주요종교 : 기독교

정부형태 : 대통령제 공화국



국가 상황

주요 종교	신자 수 (명)	비율 (%)
기독교	49,002,000	95.1
불가지론	1,388,000	2.7
민족 종교	320,000	0.6
기타	532,300	1.0

기타는 중국 민족 종교, 신종교, 시크교도, 마술사, 도교 신자, 유교도, 자이나교도, 신도 신자, 조로아스터교도를 포함한다.

콜롬비아는 수십년 동안 부패하고 힘이 없는 법적 장치 아래에서 시달렸다. 이는 국가 대부분 도처에 대부분 불법 마약, 무기, 그리고 인신매매 거래로 자금을 지원받는 번창하는 범죄 네트워크를 낳도록 했다.

2020년 콜롬비아 인권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보안 부대는 범죄 조직단들의 활동에 협동하거나 용인하는 죄로 기소 당했다. 이는 사법체계가 이미 과열되어 있고

비효율적이고, 판사, 검찰관, 그리고 증인의 부패와 협박은 사법기능을 저해한다고 명시했다.

2019년이 끝날 무렵, 학생들, 토착민 지도자들, 그리고 연방이 이끈 전국적인 시위가 발생했다. 이 시위들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보안 문제들에 집중했다. 2020년에도 지속된 시위에서 민족해방군(ELN)과 같은 불법 단체들이 시위자들과 가담했다.

먼저는 세제개혁안 부결로, 그 다음은 시위자들에 대한 정부의 폭력적인 행동에 응해 주도된 시위들이 2021년 4월에 재개되었다. 정부와 주로 조합으로 이루어진 콜롬비아 국가총파업위원회(CNP) 사이에서 시작되는 대화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회담은 CNP에 의해 중단되었다.

2022-2026 콜롬비아 대통령 선정을 위한 1차 선거는 2022년 5월에 열렸다. 선거는 결론에 이르지 못했고 2차 선거가 2022년 6월 19일에 열렸다. 승자는 좌파 연정인 Historical Pact의 구스타보 페트로가 되었다.

지역별 상황

조직화된 부패와 범죄:

기독교인들은 다음 지역에서 범죄 조직들과 불법 무장 단체들로부터 높은 정도의 압박과 폭력을 경험한다: 안티오키아, 아라우카, 볼리바르, 카케타, 카사나레, 카우카, 세사르, 초코, 코르도바, 과비아레, 메타, 나리뇨, 노르테데산탄데르, 푸투마요, 톨리마, 바예델카우카, 비차다.

씨족의 탄압:

토착민 공동체들은 전통적인 관습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기독교) 의식에 대한 수용이 적기에 부족의 종교적 실천을 버리는 이들은 박해에 직면한다. 콜롬비아에는 115개 토착집단들이 있다. 이 원주민들은 나라의 32개 주에 있다.

세속적인 편협성:

이 박해의 요인은 중앙 정부에 의해 시행된 공공정책과 주로 종교 또는 기독교에 반하는 이념을 가진 편협한 집단들에 의해 촉진된 사회 내 사회적 태도에 의존한다. 세속적인 편협성은 국내 도처에 특히 볼리바르, 보고타, 안티오키아, 칼다스, 리사랄다, 킨디오, 나리뇨, 바예, 카우카, 보야카, 산탄데르, 쿤디나마르카, 톨리마, 그리고 우일라와 같은 도시 지역에 존재한다.

박해 받는 성도

이주민 기독교 공동체

이주민 기독교 공동체는 고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점수 기록을 하지 않았다.

역사적 기독교 공동체

로마 카톨릭 교회는 이 공동체를 이루는 가장 큰 교파이다. 이 범주는 마약 범죄 조직과 조직화된 범죄 집단들의 지배를 받는 지역에서 공격의 위험에 처해있다. 토착민 공동체에 있는 로마 카톨릭이 아닌 교파들은 다른 신앙을 고취한다는 이유로 거절과 보복에 직면한다. 역사적 기독교 공동체는 증가하는 사회 내 종교적 편협성과 신앙에 대한 공개적인 표현의 거절로 씨름한다.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

이 범주는 교파를 교차하는 개종자들, 토착민 공동체 내의 개종자들, 그리고 게릴라 집단들과 범죄 조직 출

신의 개종자들을 포함한다. 특히 토착 맥락에서 개종자들은 공동체의 다수 신앙 체계를 버렸다는 이유로 괴롭힘, 추방, 살해 위협, 그리고 이외 신체적 및 정신적 형태의 폭력의 피해자이다.

비전통적 기독교 공동체

이 공동체들은 주로 침례교와 펜테코스트파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은 조직화된 범죄 집단들에 의해 가해진 압박과 폭력의 영향을 받는다. 비록 전 정부 행정부가 방치된 지역에서 평화협정 시행과 인도적 지원에 있어서 그들의 중요한 역할을 인식했지만 이 기독교 공동체들은 역사적 기독교 공동체들에게 주어진 동일한 정부 혜택을 받지 못한다. 게다가 정치권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이들은 급진적 페미니스트와 세속주의 집단들에 의해 극심한 반대에 직면한다. 이들은 토착민 공동체 가운데서 일하는 것이 자유롭지 않고 그렇게 할 때 위험에 직면한다.



박해와 차별의 주된 요인

조직화된 부패와 범죄:

콜롬비아 무장혁명군(FARC) 반체제 인사들, 민족해방군(ELN) 구성원들, 그리고 이외 게릴라 단체들은 이들의 불법 작전 활동들의 지속을 보장하기 위해 전지역에 대한 통제를 위해 싸운다. 이는 교회 지도자들과 기독교 단체들 모두 체계적인 감시, 납치, 위협, 갈취, 강제 이주, 그리고 살인, 기독교 건물들에 대한 공격의 피해자가 되도록 이어졌다. 이러한 조치들은 특히 범죄 활동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인권 옹호에 목소리를 높이고, 전투원들을 대상으로 설교하고, 특히 폭력적인 지역에서 기도의 날을 수행하고, 젊은이들이 범죄 단체에 가담하지 않도록 막는 기독교인들에게 행해진다. 기독교인들과 기독교 지도자들은 국민 시위를 지지하는 것을 거부하면 위협을 경험한다. 이들은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범죄 집단들에 의해 시위에 참가하도록 강요 당한다. 범죄 집단들은 기독교 신앙으로 개종하고 범죄를 떠난 이전 게릴라 구성원들에 보복하기도 한다.

씨족의 탄압:

토착민 공동체 가운데서 종교는 문화와 정체성의 중요한 요소이고 아주 오래되고 전통적인 신앙에 반대되는 신념의 도입은 위협으로 간주된다. 토착민 개종자들에 대한 지방 당국들의 처벌은 구금, 벌금, 신체적 및 정신적 학대, 기초적 자원에 대한 접근 거부, 재산 몰수, 그리고 강제 노동을 포함할 수 있다.

세속적인 편협성:

국가의 코로나19 위기에서 종교 부문은 콜롬비아 무장혁명군(FARC) 평화 협정의 도입과 사회적 및 인도주의적 원조를 지지하는 중요한 부류로 간주된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기독교 신앙과 실천에 대한 편협성으로 인해 점점 더 언어적 공격, 사회적 적대감, 그리고 차별에 직면한다. 국가 세속주의의 엄격한 해석은 종교적 자유와 양심의 권리를 차별철폐 권리와 자주 상충하게 둔다. 사회와 기관들은 양심적 병역 거부 권리에 대한 기독교 전문가들의 주장을 거부한다. 공개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변호하거나 특정한 교회에 대한 밀접한 관련성을 보이는 공무원들은 모두 관청에서 제거되도록 하는 압박도 존재한다. 그 결과, 국가 정치 영역에서 기독교인들의 참여는 줄어들었다.



남성과 여성의 박해 상황 차이

여성

콜롬비아에서 무장 단체들에 의한 충돌 관련된 성폭력 사건들이 계속되고 있으며 토착민 및 아프로-콜롬비아 민족 집단들이 특히 위험한 상태이다. 토착민 공동체들 가운데 토착민 의식과 관습을 받아들이기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은 강제로 결혼을 당하고, 남편들에게 버려지고, 자녀들과 분리되고, 지역사회에 의해 배척 당할 수 있다. 이는 이들을 강제로 이주로 노출시켜 인신매매와 성착취의 위험을 무릅쓰게 한다. 범죄의 통제 아래 있는 지역에서 소녀들은 강간과 성희롱을 두려워한다. 순수성과 순종성으로 인한 표적이 된 기독교 소녀들은 죽을 정도의 고통 가운데서 부모들에 의해 매수될 수 있다.

- 납치
- 강제 결혼
- 마을 / 국가에서 강제 내쫓김
- 인신매매
- 폭력 - 신체적 / 정신적 / 성적 / 언어적

남성

기독교 남성들은 특히 무력 분쟁 지역에서 높은 정도의 위협과 폭력에 직면한다. 가족 부양자로서 이들은 갈취와 살인에 직면할 수 있다. 불법 무장 단체들은 납치, 강제 징집, 그리고 폭력에 노출된 기독교 남성들과 소년들에게 가장 큰 위협을 끼칠 수 있다. 이들은 이 단체들의 활동들 가운데서 세뇌와 의무 참여의 위협을 무릅쓴다. 교회 지도자들은 특히 범죄 집단들에 대해 반대하는 뜻을 공개적으로 말하는 경우에 특히 위험한

상태에 처한다. 일부 토착민 공동체들과 함께 개종자들은 구타, 괴롭힘, 위협, 그리고 강제 노동과 같은 극심한 압박에 직면한다.

- 납치
- 사회적 공동체 / 연결망 접근 제한
- 교육에 의한 차별 / 괴롭힘
- 벌금에 의한 경제적 괴롭힘
- 집으로부터 강제 내쫓김 / 추방
- 마을 / 국가에서 강제 내쫓김
- 군대/ 민병 징집/ 양심에 반하는 복무
- 인신매매
- 폭력 - 살인 / 신체적 / 정신적 / 언어적

콜롬비아 기독교 박해지수 5년 동향

연도	오픈도어 기독교 박해지수 순위	박해점수 (100점 만점)
2023	22	71
2022	30	68
2021	30	67
2020	41	62
2019	47	58

전체 점수가 3점 증가한 것은 주로 보고기간 동안 기독교인들을 겨냥한 특히 살인과 같은 많은 폭력적인 사건들로 인한 것이다. 압박은 주로 나라의 많은 지역에 있는 범죄 단체들의 활발한 존재로 인해 증가했고 기독교 활동들(개인 및 집단적 수준에서)을 저해했다. 일반적으로 콜롬비아 사회는 공청회에서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편협성이 악명 높은 수준으로 증가했고 토착민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출신 지역사회에서 계속해서 큰 장애물들에 직면한다.

보고 기간 동안의 폭력 사례 (2021년 10월 1일 - 2022년 9월 30일)

- 2022년 2월: 루벤 다리오 자라밀로 주교는 부에나벤투라 지역에서 무장 단체들의 활동들을 공개적으로 비난했고 그가 어떻게 몇몇 살해 위협을 당했는지 알렸다. 그는 부에나벤투라 항구 지역의 일부 장소에 출입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Agenzia Fides, 2022년 2월 8일).
- 2022년 3월: 두건을 쓴 남성 집단이 프리마다 대성당 주일 미사 중에 구호를 외치면서 침입했다 (Aciprensa, 2022년 3월 21일).
- 2022년 6월: 국내 정보원에 의하면, 5명의 토착민 기독교인들이 카우카 토착 당국들에 의해 채찍으로 구타 당하고 수 시간 동안 감방에 구금되었다. 이들은 토착민 공동체에 의해 승인된 전통적인 학교 교과 과정과 모순되는 기독교 가르침을 퍼뜨렸다는 혐의로 고발 당했다. 이들은 공동체에 의해 시행된 교육 모델 수용을 명시하는 서류에 서명하도록 강요 당했다.

보고 연도	공격을 입거나 폐쇄된 교회들 또는 기독교 건물들	구금 당한 기독교인들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학대를 당한 기독교인들	국내실향민이 된 기독교인들
2023	37	6	377	124
2022	96	45	683	598

이 표는 보고 기간 발생한 신앙 관련 폭력의 몇 가지 범주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결과는 Full Country Dossier의 폭력 영역에서 확인 가능하다. 많은 사건들이 보고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수치는 최소한의 수치로 이해되어야 한다. 정확한 계산이 불가능한 경우에 상징적인 어림수가 주어졌고(10*, 100*, 또는 1000*) 이 결과들은 실제로 상당히 더 높을 수 있다.

개인 생활

기독교인들은 개인적으로 자신들의 신앙을 실천하는데 있어 특히 거절, 괴롭힘, 위협, 제한, 그리고 추방과 같은 갖가지 위험에 직면한다. 기독교인들은 신앙 기반의 견해를 변호하면 이념적인 압박 단체들로부터 적대감에 직면할 수 있다. 기독교인들은 토착민 공동체들 또는 조직화된 범죄에 의해 통제된 지역에서 동료 신자들과 만나면 박해에 직면한다.

가족생활

범죄 네트워크에 의해 통제된 지역에서 기독교인 부모들은 자녀들이 국내 도처에서 존재를 강화하는 민족해방군(ELN), 반체제 무장혁명군(FARC) 게릴라들, 그리고 이외 불법 단체들에 의해 세뇌 당하거나 징집당할 위험을 무릅쓴다. 항의는 보통 공동체에 의한 괴롭힘, 폭력, 또는 추방으로 이어진다. 토착적 맥락에서 학교는 이방인으로 간주하는 기독교인들을 희생시키면서 민족집단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토착적 학교들과 정부가 운영하는 학교들에서 기독교 원리와 모순되는 필수 과목들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그들의 종교적 신앙에 따라 양육하고자 하는 권리를 흔히 침해한다.

지역사회 생활

토착 당국들은 조상 또는 전통적 민족 신앙과 관련된 공동체의 종교적 실천에 참여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에 대해 벌금 체계(주로 현금 또는 수확품)를 사용한다. 추가적으로, 기독교인들은 예를 들어 깨끗한 물과 의료와 같은 기초적인 자원들에 접근하는 것에서 제외되고 더 넓은 사회와 그들의 가족들로부터 배척당한다. 기독교 아이들은 부족의 관습을 버린 것에 대한 보복으로 자신보다 더 나이가 많은 사람과의 강제 결혼에

취약하다. 범죄 집단들은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대가로 교회 지도자들에게 흔히 보호금을 요구한다. 범죄 집단들이 요구한 이 비용은 그들의 자녀들에 대한 강제 징집의 위험을 가감 높일 수 있다. 이 집단들은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규칙을 받아들이도록 강압하기 위해 절실히 필요한 정부 및 인도적 지원을 훔치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국가 생활

토착민 공동체에서 토착 관습은 합헌적으로 보호되고 자주적인 민족종교적 지도자들은 선동자이자 그들의 공동체에서 정당성을 부여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에 대한 침해는 흔히 처벌 받지 않는다. 토착민 공동체들은 자신들의 사법권에 대한 권리가 흔히 주어지기 때문에 영향을 받은 기독교인들은 법원의 재판을 청할 수 없다. 다른 경우에, 국가의 많은 지역에서 범죄 집단들이 사실 상 당국들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표현과 이동의 자유를 포함해 그들의 권리를 충분히 실천할 수 없고 흔히 처벌 받지 않고 행동하는 불법 단체들에 휘둘린다. 추가적으로, 콜롬비아 사회는 기독교의 공개적인 표현에 대해 점점 더 편협해지고 있다.

교회 생활

교회는 범죄 집단들, 토착민 지도자들, 그리고 이념적 압박 단체들의 위협에 대한 빈번한 표적이다. 기독교 지도자들과 가족들은 특히 토착민 공동체에서 괴롭힘의 표적이 되고 모든 기독교 활동들은 금지된다. 범죄 집단들에 의해 흡수된 지역에서 기독교 지도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은 흔히 폭력, 감시, 그리고 이동 제한에 있어서 가장 빈번한 희생자이다. 특히 이들이 인권, 환경, 젊은이들 사이에서, 평화협정 시행, 또는 코카 재배를 막는 일을 할 때 더 그러하다. 목회자의 자녀들은 인신

매매, 강제 징집, 또는 목회자들이 그들의 사역을 계속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강간의 특수 표적이다. 결혼
과 가정에 대한 옹호 및 교회들이 공공 부문에서 개입

을 추구하는 방법과 관련된 기독교 설교에 대한 사회
의 철저한 검토가 증가하고 있다.

국제적 의무 및 권리에 대한 위반

콜롬비아는 다음 국제 조약들에서 기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로 약속했다.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ICCPR)
2. 경제적 ·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ICESCR)
3. 고문방지협약 (CAT)
4. 여성차별철폐협약 (CEDAW)
5. 유엔 아동권리협약 (CRC)

콜롬비아는 다음 기독교인들의 권리를 자주 침해하거나 보호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의 국제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

- 기독교인들은 신앙을 표현한다는 이유로 민병대들에 의해 표적이 된다 (ICCPR 제18조)
- 기독교인 아이들은 부모의 신앙을 이유로 괴롭힘을 당한다 (ICCPR 제18조, CRC 제14조)
- 기독교인들은 공공 부문에서 구직의 제한을 직면하고 민간 부문에서 차별에 직면한다 (ICCPR 제25, 26조, ICESCR 제6조)
- 기독교인들은 신앙을 논하거나 개종시키는 것에 참여하면 괴롭힘과 폭력에 직면한다 (ICCPR 제18, 19조)



이외 소수 종교 집단의 상황

2021 미 국무부 종교자유 보고서에 의하면, 유대인 공동체는 모든 대선후보들과의 일련의 회의의 일환으로 2021년 5월에 콜롬비아 유대인 공동체 연합이 한 대선후보와 만난 후로 일부 소셜미디어 사이트에 반유대주의를 촉진하는 비판에 대해 보고했다.



콜롬비아 오픈도어 사역

오픈도어는 다음을 통해 콜롬비아의 박해 받는 교회들을 강화한다:

- 성경적 훈련 / 훈련 자료 배부 / 성서 자료 개발
- 트라우마 훈련
- 민족교육에 대한 조언
- 공동체 개발:
성경적 세계관; 농기구; 그리고 청지기 훈련
- 유형 기반시설 개선
- 생산적인 프로젝트
- 교육 프로그램 (어린이 센터 / 장학금)
- 긴급 박해 구호

파키스탄 자란왈라의 기독교인들이 곤경에 처하다



채널추가하시고 매주 전세계의
기독교 박해뉴스를 받아보세요.

하디(가명)는 모든 가정용품들을 잃었다. “저는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나 저에게 가장 소중한 이는 안전해요.”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 딸을 자신 곁으로 데려왔다. 하디는 2023년 8월 16일 이른 아침, 자란왈라를 보금자리로 삼는 기독교 공동체 무리들을 가로지르는 수많은 모스크의 발표가 진행된 뒤에 쫓겨난 수천명의 기독교인들 중 한명이다. 그는 다른 이들을 따라가는 세 명의 이웃들을 따라갔다. 사람들은 다른 마을에 있는 친척들과 관계들에 연락을 취했다. 다른 무리에서 온 하디의 조카 샤히드(가명)는 그에게 전화를 걸어 현지 이맘들이 쿠란을 불태운 기독교인들을 찾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했다. “그들은 찾고 있는 이를 찾지 못한다면 와서 모든 것을 불태울 겁니다. 리나를 데리고 어서 떠나세요. 시장 모퉁이 밀크스탠드에서 만갑시다. 저는 할머니를 모시고 있으니 당신 오토바이에 태워주세요.” 하디는 휴대폰, 시계, 돈, 그리고 아내와 아이의 사진을 챙겨 리나를 데리고 오토

바이에 올라탔다. 그리고 가는 길에 샤히드를 만나 할머니를 오토바이에 태웠다.

85세 할머니, 40세 남성, 그리고 8세 여성은 불과 몇 시간 뒤에 자란왈라 사탕수수 밭에 숨어 쫓겨나 굶주리고, 목마르고, 그리고 겁을 먹은 채로 웅송그린 다른 기독교인들 옆에 앉아있었다. 모기들로부터 시달리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불에 타는 고향 마을을 바라보는 것 밖에는 없었다. 하디는 딸에게 뭐라고 얘기해줘야 될지 몰랐다. 2주가 지나서도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될지 몰랐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아무런 흔적도 없었다. 집은 완전히 비어 있었다. 하디의 아내는 수년 전에 사라졌다. 그녀의 행방과 그 이유를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그가 벽에 걸어 놓은 결혼 사진은 지금 재가 되어 바닥에 떨어졌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도망칠 때 챙겨 둔 주머니속의 사진 한 장이다. 집 안에 있던 물건들은 다 파괴되었다. 침대, 냉장고, 선풍기, 의자, 식탁, 그리고 옷과 이불 모두 다.



그는 딸을 보호하기 위해 늘 근신하고 너무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도록 노력했다. 며칠 뒤에 샤히드는 리나가 마음을 다잡을 수 있도록 등교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삼촌을 설득했다. 비록 교과서, 가방, 또는 교복이 반쯤 타고 쓰레기더미처럼 남아있었지만. 그리고 리나는 등교한지 한 시간 만에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은 어려운 시기가 우리에게 닥쳤기 때문에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학교에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많은 이들이 똑같이 하는 말이다.

자란알라에서 목회 돌봄은 계속 진행 중이고 회복 돌봄, 보호, 교육과 함께한 옹호, 건강관리, 시당국으로 하여금 보육을 보장하도록 하는 것, 아이들의 지속적인 교육, 종합적인 건강, 그리고 가족 보호를 제공한다. “사람들이 곤경과 차별하고 저희 자녀들과 형제자매들이 다시 한번 직장, 학교, 그리고 대학들로 받아들여지도록 저희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어려운 시기가 끝나도록, 물이 정수 되고 전기가 복구되고, 그리고 밤에 편안히 잠들 수 있도록 집에 잠금 장치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교회들은 다시 십자가를 내걸고, 찬양하는 소리가 안에서 울려 퍼지고, 소망의 빛이 그 안에서 뻗어 나가는 좋은 시기가 저희에게 올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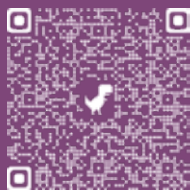


파괴된 파키스탄 기독교 공동체를 위한 긴급구호

2023년 8월 16일 전세계 기독교인들은 파키스탄의 형제자매들이 또 다른 공격을 견디어 내는 모습을 공포에 사로잡혀 지켜봤습니다. 수천명의 극단주의자들이 기독교 공동체에 들어 닥쳤습니다. 교회와 집은 불탔고, 묘지는 파헤쳐졌으며, 성경을 불태우는 등 신자들의 삶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1,600명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긴급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93채의 가옥이 파괴되었고, 20채 이상의 교회당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파키스탄에 있는 형제자매들은 우리의 지원과 기도가 절실합니다.

그들이 최근 받은 공격으로부터 슬퍼하고 있을 때 당신의 기도에 파키스탄의 신자들을 기억해주시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마음을 치료하시며, 용기를 가지고 전진할 수 있도록 간구해 주십시오. 만약 감동이 있다면 재정적 지원을 통해 도울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헌금은 긴급 지원과 구호는 물론 교회의 재건을 위해 장기적 지원을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후원을 통해 오픈도어 현장 파트너가 최근 공격에서 신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 - 긴급구호, 트라우마 치료, 보호소 운영, 음식제공 등 - 이 무엇이든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키스탄 교회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모금될 경우, 전세계 긴급한 필요에 직면한 가장 취약한 기독교인을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사무총장 김경복 선교사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001-884989
(예금주: 한국오픈도어선교회)

긴급구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오픈도어선교회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참고해주세요.

리비아_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

정부당국은 샤리아 법 (또는 이슬람 법)이 국가의 운영 방식과 문제 해결 방식을 지배하는 리비아를 완전한 이슬람 국가라고 주장한다. 이는 사회의 시야로는 리비아에 기독교인들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대중들이 이와 같이 믿도록 하는 것이 곧 당국이 원하는 바이다. 그러나 진실은 더 복잡하다.

리비아의 신자들 대부분은 자신의 신앙을 때때로 수년간 감추고 정확한 신자 수는 완전히 알려져 있지 않다. 신자들이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것, 특히 그들이 이슬람교 출신인 경우에 이는 가장 위험하다. 이러한 신자들은 발각될 경우에 자신의 가족으로부터 괘시를 받을 수 있고 이슬람 과격분자들과 리비아 정부로부터 위협에 직면하는 것은 분명하다. 오픈도어는 리비아 인구 7백만명 중에서 기독교인이 35,000명 정도일 것으로 추정한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이집트 또는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와 같은 곳에서 온 외국인 이주자이고 소수는 이슬람교에서 개종한 리비아 사람이다. 그러나 리비아에 있는 모든 신자

들은 자신의 가족, 국가, 그리고 사회로부터 극심한 압박을 경험할 수 있다. 기독교인들은 투옥될 위험을 무릅쓰고 모든 신자들은 목숨을 잃을 수 있는 끊임없는 위험 가운데 있다.

기독교인들은 리비아에서 항상 박해에 직면했고 가해자만 바뀌었다. 1969년부터 사망한 당시 2011년 3월까지 리비아를 통치한 전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다. 이와 같은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민병대들과 단체들은 현재 상황과 이슬람 사회를 저항하는 모든 이들을 추적한다. 기독교인들은 그 집단 중 하나이다. 이주자 신자들을 포함한 리비아의 기독교인들은 이슬람교에서 개종한 이들과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및 이집트에서 태어나고 자란 기독교인들로 섞여 있다. 이 곳에서 온 기독교인들은 구직의 기회와 집으로 보낼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해 리비아에 끌렸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유럽으로 가고자 시도하다가 결국 리비아에 남게 된다. 유럽은 국경을 폐쇄했고 많은 이주자들은 임시 수용소에 있으면서 리비아에 갇혀 있다. 이 곳에 있는 신자들은 압박과 박해에 시달린다.

리비아에는 소수의 교회가 있고 모두 이주자 공동체에 맞춰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회의 신자들마저 위협에 처해있다. 7명의 콥트 기독교인들이 2014년에 악명 높게 체포당하고 처형당했고 21명의 콥트 기독교인들이 2015년에 이슬람국가 단체에 의해 납치되어 참수당했다. 그러나 리비아에서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위험한 활동은 복음 전도이다. 리비아에서 자신의 신



앙을 나누는 것은 불법이고 다른 이들과 신앙에 대해 논하는 것은 위험하다. 이슬람교가 법이며 기독교는 선택 사항이 아닌 국가에서 리비아 정부 또는 사회는 기독교인을 용인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 실제로는 사람들을 이슬람교로 돌아오도록 노력하는데 큰 에너지를 들인다.

2023년 초, 이러한 현실은 가혹하게 입증되었다. 3월에 6명의 리비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이유로 구금되고, 학대당하고, 사형에 직면했다. 리비아 국내안보부는 그들을 범죄 조직으로 여겼고, 기독교로 개종하고 신앙의 자유가 없는 지역에서 전도했다는 죄로 그들을 체포했다. 그리고 구금된 지 5개월이 지나서도 그들의 생사는 불분명했다. 리비아 정부당국은 이 상황이 종식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갈등이 고조되고 있고 소셜 미디어와 거리에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겨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 문제의 결과로서 사람들은 처음으로 기독교에 대해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리비아 정부는 사람들이 이 사건을 비롯해 기독교에 관한 모든 것을 잊어버리기를 원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다른 기독교인들과 교회들에 교훈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리비아에서 기독교는 불가능해 보인다. 그러나 볼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일하고 계신다. 성경은 우리에게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신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전세계 교회들은 감금된 기독교인들의 유일하게 남은 가족, 그리고 리비아의 모든 기독교인들의 유일한 희망의 근원으로서 역할을 한다. 신자는 정말로 결코 혼자가 아니고 교회는 모든 신자들이 도전과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도록 일어서고 지원할 방법을 항상 찾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리비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오늘부터, 앞으로 매일매일 기도하실 때 리비아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감옥에 갇힌 기독교인들과 리비아 교회들을 위해서요. 리비아에 있는 저희 형제자매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너무나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더욱 강하게 해주시고 상처를 보듬어 주시기를 기도해주세요.



함께 기도해주세요

1. 모든 이들이 다른 종교로 개종하고 나서도 사회에서 수용될 수 있게해주세요.
2. 하나님께서 리비아의 기독교인들에게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최대한 많은 이들에게 자신을 알리시어 교회가 더 크고 깊게 자랄 수 있게해주세요.
3.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들이 신앙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4. 리비아의 기독교인들이 공개적으로 그들의 신앙을 실천할 수 있는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5. 교회들이 등록하고 공개될 수 있도록.
6. 리비아 극단주의자들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를.
7. 2023년 9월 10일, 집과 사람들을 휩쓴 대규모 홍수로 고통받고 있는 리비아를 위해 긴급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주님, 당신의 자비롭고 조건 없는 사랑으로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보호해주세요.

현장스토리

스리랑카_ 16세 소년이 그리스도를 위해 나섰습니다

11세에 말리스는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자신의 결정이 그가 사는 스리랑카 지역에서 대중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이 소년은 자신이 새로운 발명품들을 고안하고 설계하는데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년은 태양열의 야광 장갑을 만들었고 학교 대회에서 최고 혁신상 트로피를 수상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해에 소년이 선생님에게 대회 일정에 대해 묻자 선생님은 이번해는 대회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두 달 뒤에 말리스는 사실 대회가 열렸는데 그는 참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그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어떤 대회에도 참가하지



못해요” 소년이 말했다. 그러나 말리스가 유일한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소년은 자신의 신앙을 위해 용감하게 일어난 신자이죠. 말리스가 학교 활동과 대회에서 제외된 것은 소년이 불교의식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소년에게 불교 활동에 참여하라고 하자 말리스는 돌려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이고, 이러한 의식에 참여할 수 없어요”.

오픈도어 파트너들은 이러한 용감한 입장을 취한 기독교 학생은 이 학교에서 소년이 유일하다고 말합니다. 소년의 학교에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평가받거나 제외 당하는 것이 두려워 도리어 자신의 신앙을 감추기로 선택합니다. “그들은 선생님들과 다른 학생들에게 팔시를 받는 것을 두려워해요. 그들은 저와 연결고리가 있으면 선생님들이 자신들도 팔시할 까봐 무서워해요. 지나갈 때 제 얼굴을 보지도 않아요.” 말리스가 설명합니다.

선생님들도 말리스를 차별합니다. 흔히 소년은 선생님들에 의해 부당한 처벌을 받고 구타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가끔 이유 없이 제 시험 점수를 낮추기도 해요.” 소년은 불교 활동에 참여하고 싶지 않아 등교하지 않고 집에 남아있기를 요청했던 때를 기억합니다. 그의 요구는 승인되었지만, 그 다음 날 교장은 다른 학생들 앞에서 소년에게 굴욕감을 주었고 그날부터 모든 종교 활동에 참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말리스는 다시 한번 굳건히 섰습니다. 소년은 모든 이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자신의 종교를 따를 권리가 있습니다”.

16세 소년은 자신이 신념에 충실하고 신실하게 살아 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소년이 따돌림과 고립의 고통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말리스는 다른 십대들처럼 또래들에게 소속감을 느끼고 받아들여지고 싶습니다. “저는 슬플 때 조용히 마음 속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소년은 이렇게 말하며 자신이 학교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함께 나눴습니다. 말리스는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체험으로 이해합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10장 22절). 오픈도어 현장 파트너들은 말리스, 그리고 그의 가족과 함께 만나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소년은 오픈도어 “Standing Strong Through the Storm” 박해 대비 계획과 오픈도어 현장 파트너들이 이끄는 법의식 세미나에 참여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소년이 계속해서 박해에 맞닥뜨릴 때 신앙을 위해 나설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년은 이렇게 나눴습니다 “저희가 다른 종교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성경에 반하는 것이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할 수 없어요.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은 생활 방식이죠”.

함께 기도해주세요

1. 올해 말리스는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용기와 지혜를 위해, 그리고 소년의 진로 계획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말리스는 대회에 대한 기억이 아픔이 되고나서 혁신적인 것에 대한 흥미를 잃었지만, 공학 분야에서 직업을 찾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행동들이 소년의 향후 계획을 막지 않도록 기도해주세요.
2. 말리스는 학교의 일부 학생들에 대해 무거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6학년 학생들조차 마약에 중독되어 있어요.” 이 학생들을 위해 소년과 함께 기도해주세요. 소년이 그리스도를 위한 빛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3. 말리스와 같은 기독교인 학생들에 대한 탄압이 줄어들도록 기도해주세요. 신앙을 위해 나서는 것을 두려워하는 기독교인들이 다른 길로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해주세요.



나이지리아_ 사가랴 목사는 아내와 아들이 주님과 함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영상)

“저희는 이번 공격이 일어나기 전에 지역사회에서 평화롭게 살았어요. 풀라니족과 함께 일하고 함께 살았고 저희 집에 와서 식사도 하고 가끔 잠을 같이 자기도 했어요. 5월의 그날 아침, 제가 여정에서 돌아와 마을에 공격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되기 전까지 말이죠.” 사가랴 목사는 그날을 천천히 기억해냈습니다. 2023년 5월 15일 새벽 12시 20분경, 풀라니 과격분자들은 사가랴 목사의 마을을 급습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해 듣고 나서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어요.” 마침내 다음 날 아침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집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도망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날 아침, 마을에



도착했을 때 저는 사람들이 반대 방향으로 힘들게 이동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대부분이 맨발이었고 온 몸이 진흙투성이었죠.” 나중에 그는 간신히 공격을 피한 사람들 대부분이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어가야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습니 다. “저는 부상입은 사람들을 만났고 길가에서 희생자들의 시신을 보았어요. 주변에는 불탄 집들만 있었고 제 집도 완전히 불탄 것을 보게 되었어요. 집에 들어가 아내와 아이를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집 안 모든 방들을 확인하고 나갔는데 밖에 있는 주방 막사에서 아내와 아들의 시신을 보게 되었어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그렇게 울었어요. 그리고 죽음은 정말 고통스러운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내의 시신을 보고 그녀와 함께한 삶이 기억났어요. 저희는 북동부 지역으로 나가서 함께 설교하고, 교회를 함께 개척했어요. 교회를 세우면 저는 다른 교회로 옮겨가고 아내는 이전 교회를 감당하며 계속해서 성도들을 격려했어요. 저희는 모든 것을 함께하며 서로 손잡고 걸어갔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망구 지역에서 일어난 이 일은 복잡한 문제의 일부분이지만, 끊임없이 이러한 맹공격의 대상이 되는 사가랴 목사와 같은 기독교인들에게는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공격받은 이유에 대한 저의 견해는 첫째, 그들은 저희가 이슬람으로 개종하기를 바랐던 것 같아요. 둘째, 그들은 저희를 쫓아내면 자기 소들을 방목할 공간을 더 많이 가질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목사는 공격 이후에 자신을 비롯해 많은 마을 주민들이 다시 시작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했습

니다. “이 공격은 정말 저희에게 개별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저희는 집과 의복을 잃었어요.” 모두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자급자족 농민들인데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필요한 작은 부분의 땅마저 손 내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저희는 아침 일찍 아니면 농장에 갈 수도 없고 안전을 위해 정오 전에는 떠나요. 그들은 자기 소들을 데리고 와서 저희 농작물을 먹이죠.”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사가랴 목사는 계속 하나님의 백성의 목자가 되기로 헌신했다. “저는 성도들과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필사적으로 의지하라고 말해요. 죽음은 병에 걸렸을 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사고와 공격으로 찾아올 수도 있기 때문이죠. 저희는 많은 사람들을 잃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때가 오면 그것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저는 계속해서 격려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그분을 구주로 받아들이며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그분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도록 해요.”

사가랴 목사는 성숙한 신자이지만, 그 누구도 이러한 상실과 트라우마를 감당할 만큼 충분히 대비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이 일은 저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저는 이 일 이후에 무엇을 하든지 저희가 겪은 것을 언제나 기억해요. 기도할 때도 그 일에 대한 생각에 빠지곤 해요.” 이 모든 것 가운데에도 그는 계속해서 섬기며 신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굳게 남도록 격려합니다. “저는 항상 성도들을 모아 함께 교제하고자 하는데, 일부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돕지 않으신다고 느끼는 것 같기도 해요. 그들은 하나님이 도울 수 있으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는지 질문해요.” 이러한 공격들은 의도적이든 아니든 성도와 예수님의 동행에 영향을 주고 신앙의 가치에 관한 질문들을 마주하게 합니다. 오픈도어 파트너들은 망구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상담과 영향을 받은 개인들을 위한 트라우마 치유를 위해 저희를 불러 주셨고 저는 많이 배웠어요.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때에 어떤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허락하기도 하신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저희를 공격한 이들을 용서하도록 가르쳐 주기도 했어요. 이 가르침은 정말로 저를 격려해주었어요. 지금 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도록,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

라에 갈 수 있도록, 성경에서 말씀해주시는 것처럼 죄 가운데서 죽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이 훈련에 찾아오지 않았다면 저는 괜찮은 삶을 살고 있지 못했을 거예요. 이전에 저는 그때 일어난 공격을 계속 생각하느라 잠을 자지 못했거든요. 그러나 트라우마 돌봄을 받고 나서는 마음이 편안 해졌어요.” 현장 파트너들에 의하면 망구 지역에서만 3,683개 가정들로 이루어진 최소 36,683명의 사람들이 난민이 되었습니다. 나이지리아 국가비상관리청(NEMA)는 일부 구호 지원을 배부했지만 모든 이들에게 이를 수 없는 규모의 이동이었습니다. 오픈도어 현장 파트너들도 필요가 올해 구호 지원 예산을 초과해 사가랴 목사와 같은 일부 신자들에게 트라우마 돌봄만이 제공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제 가족을 데려가신 것은 때가 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제 가족을 분향으로 부르신 거예요. 저희가 경험한 일들과 같은 상황에 처한 이들이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되시는 하나님께 의지하도록 기도해요. 하나님을 외면하면 그분을 도움을 줄 수 없는 분으로 보게 되겠지만, 그분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신뢰하면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사가랴 목사는 비통함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을 격려해준 요한복음 14장의 성경 구절을 나눴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떠나간 아내, 아들, 그리고 저희 성도들이 그분과 함께 안식하고 있다고 확신해요. 아직 이 땅에 남아있는 저희는 주님이 오셔서 분향으로 함께 데려가시기를 기다리고 있죠. 저를 기다리는 곳이 있음을 알기에 이 말씀은 저에게 정말로 격려가 되어요.”

함께 기도해주세요

1. 그리스도 안의 사랑하는 형제자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저와 남아 있는 네 명의 아이들을 잘 부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도록, 그리고 아이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결코 돌아서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도록 기도해주세요.
2. 저희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강해져서 저희가 이 땅에서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저와 함께 기도해주세요.
3. 사가랴 목사가 섬기는 교회의 신자들과 더 넓게는 망구 지역에서 트라우마를 당하고 쫓겨난 이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무거운 마음을 돌보고 성령이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로하고 상처를 보듬어 주시도록 기도해주세요.
4. 하나님께서 현장 파트너들을 통해 오픈도어의 수고를 사용하시어 영향을 받은 신자들을 돌보고 희망과 치유를 주시도록 기도해주세요.

이 이야기는 한국오픈도어 유튜브 채널에서 “사가랴 목사는 아내와 아들이 주님과 함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영상과 함께 들어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해주세요

기독교 박해가 극심한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성도들과 교회들은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오픈도어 ‘일어나라 아프리카 Arise Africa’ 캠페인에 참여해주세요. 캠페인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오픈도어선교회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Heart To Heart

11월 5일, 박해 받는 교회를 위한 국제기도의 날(IDOP)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사46:1

지금 전세계적으로 재난이 끊이지 않습니다. 전쟁, 군사 쿠데타, 역병, 홍수, 산불 그리고 지진으로 인한 환난이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를 믿는 다는 이유로 살인, 폭력, 차별, 배제, 성폭행, 납치에 노출된 성도들이 3억 6천만 명이나 됩니다. 이는 전세계 기독교인 7명중 1명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환난 날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1996년 세계복음주의연맹(WEA)는 매년 11월 첫째주를 박해 받는 교회를 위한 국제기도의 날(IDOP: International Day of Prayer for the persecuted church)로 정했습니다. 전세계 교회가 마음을 모아 박해 받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올해로 28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오픈도어는 이 기도운동을 함께 하는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오픈도어 설립자 브라더 앤드류(Brother Andrew)는 평생 박해 받는 이들을 위한 섬김을 인정 받아 1997년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세계복음주의 연맹 총회에서 종교자유상을 수상한 첫 수상자입니다. 브라더 앤드류는 수상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연설했습니다. “저희는 교회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 박해 받는 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동원하는 것을 통해서만 그들의 고난에 참여하는 가운데 중요한 변화를 볼 것입니다.”

11월 5일 국제기도의 날에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초대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1. 2023년 IDOP는 언제입니까?

2023년 11월 5일 주일

2. 만약 우리 교회가 그 날에 이미 예정된 행사가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성도들을 위해 자유로운 날을 선택하고 기도하면서 박해 받는 교회를 기억하면 됩니다. 매주 주일마다 박해 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박해 받는 교회를 돕기 위해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요?

IDOP의 임무는 박해 받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데 전적으로 집중하는 것입니다. IDOP 협력단체인 오픈도어는 박해현장에서 다양한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픈도어의 사역 파트너가 되어 실질적으로 박해 받는 교회를 도울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오픈도어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후원하기 - 지역 후원이사 참고해주세요. IDOP 주일 당일 지정헌금으로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해주세요

4. IDOP 주일 이후 박해 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도 자료가 있습니까?

예, 오픈도어는 모바일 주간 소식지 [오픈도어위클리]를 매주 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카카오톡채널: 한국오픈도어선교회 Open Doors 추가하시면 박해현장, 박해뉴스, 박해스토리, 그리고 선교영상을 보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해주세요

5. IDOP 주일을 위한 유용한 자료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오픈도어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요청하기 - 오픈도어 Sunday 참고해주세요. 이곳에서 국제기도의 날(IDOP) 관련 자료들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도어 기존 간행물 [월간 오픈도어], [오픈도어위클리], [기도월력], [월드와치리스트 50일 기도]에는 박해 받는 교회에 대한 다양한 소식들이 담겨있습니다. 특별히 월간 오픈도어 11월호는 IDOP 특집으로 발행됩니다. 필요한 만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해주세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계 3:2)
Wake up! Strengthen what remains and is about to die. Rev 3:2

YEARLY CAMPAIGN

개인 후원자 500명,
후원교회 100교회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진흙속에서도 꽃은 피어납니다.
굴이 깊을 수록 절경을 빚어 냅니다.
박해와 핍박속에서도 성도들의 믿음은
정금과 같이 빛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박해받는 성도들을 더욱 강하게 세울 것입니다.
이 사역을 더욱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선교회의 운영과 개발사역을 위해
월 10,000₩ 정기후원자와
월 50,000₩ 정기후원교회가 되어 주세요!

● 한국오픈도어 CMS 정기후원 자동이체 신청하기

이름(예금주)		출금은행		계좌번호	
주민번호		출금액	10,000원 기타:	출금일	<input type="radio"/> 5일 <input type="radio"/> 25일
전화번호		출금동의 서명			
주소					

*작성하신 후 사진으로 전송해주세요 (010-7548-3171)



OpenDoors

Serving persecuted Christians worldwide